

# 간호대학생의 치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두리\*, 박지연, 박지연, 방지윤, 배다연, 배다원, 진혜진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Doo Ree Kim\*, Ji Yeon Park, Ji Yeon Park, Jiyun Bang,  
Dayeon Bae, Dawon Bae, Hyejin Jin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간호의 질과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치매노인에게 간호 수행을 제공할 기회가 많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 노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자료수집을 위해 D시 일개 간호대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for Win 21.0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치매 노인의 태도는 노인접촉경험( $r=.239, p=.003$ ), 공감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 $r=.273,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beta=.23, p=.004$ ), 노인관련 봉사활동 경험( $\beta=-.206, p=.009$ ), 공감능력( $\beta=.181, p=.021$ ), 노인접촉경험( $\beta=.167, p=.034$ )이 치매 노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변수들의 치매노인 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19.0% 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함양을 위하여 영향요인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By 2025, South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ing society in which dementia nursing services are in high dem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is crucial for delivering quality care to this demographic. Given that nursing students will probably care for patients with dementia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nursing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Responses from 150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ity D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 descriptive survey design and analyzed using SPSS for Win 21.0. Results indicated that contact experience with the elderly ( $r=.239, p=.003$ ) and empathy ( $r=.273, p<.001$ )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Gender ( $\beta=.23, p=.004$ ), volunteer experience with the elderly ( $\beta=-.206, p=.009$ ), empathy ( $\beta=.181, p=.021$ ), and contact experience ( $\beta=.167, p=.034$ ) were found to be influential factors, and to explain 19.0% of the variance in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Data from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upportive education and intervention to promote identified factors and enhance nursing college students' competency when caring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Keywords** : Nursing Students, Dementia, Knowledge, Attitudes, Empathy, Elderly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R1F1A10497061330882063400103)

\*Corresponding Author : Doo Ree Kim(Konyang Univ.)  
email: kdr2015@konyang.ac.kr

Received February 7, 2024

Revised February 27, 2024

Accepted March 8,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도 기준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상병자 수는 10.4%에 달한다[2]. 이러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치매 노인의 증가로 인해 치매 관리와 관련된 건강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들의 간호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3].

치매는 대상자 별로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치매에 대한 초기대응이 부적절해 지고 이는 치매노인 및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치매에 대해 조기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이 필요하다[4]. 의료인 중에서도 간호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로 현장에서 치매노인에게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보건인력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5]. 간호사의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치매 환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치매 환자와의 상호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6]. 선행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중심돌봄의 주 영향요인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가 나타났다[7]. 즉,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치매 환자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7].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 추후,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간호를 수행할 예정으로 이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5].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매정책에 대한 높은 인식, 치매병동 근무의향, 치매에 대한 관심, 치매지식수준으로 나타났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 때부터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추후, 치매 노인간호에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치매 노인에 대한 간호는 치매노인에 대한 공감 능력 없이는 제공하기 어렵다[9].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10]의 연구에서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매지식, 공감능력, 치매에 대한 태도 등이 나타났으며,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치매태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치매 교육경험, 치매노인 자원봉사경험, 치매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나타났다[11]. 이처럼 긍정적인 치매 태도 형성에 치매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치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노인접촉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치매지식, 노인접촉경험, 공감능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치매태도의 긍정성을 높이고 치매노인돌봄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1~4학년,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5 program을 이용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예측인자 10개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의 크기는 147명이었다. 이에 약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약 1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응답에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을 10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50부의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치매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는 Cho [12]가 개발한 치매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치매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 5문항(1~5번)과 행동적인 태도 5문항(6~10번),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인 태도를 파악하는 문항(1~5번)은 역 문항

으로 코딩시 역으로 환산하여 코딩하였다. 행동적인 태도 5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ho [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6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69이었다.

### 2.3.2 치매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2011년 서울시 치매 센터에서 개발한 치매지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13]. 치매지식 측정 도구의 항목은 치매의 원인(1, 2, 3번 문항), 치매의 예방 및 치료(4번, 8번, 9번, 10번 문항), 치매의 증상 및 진단(5번, 6번, 7번 문항), 치매 환자의 보호(11, 12번 문항)로 구성되었다. 치매지식을 묻는 문항은 '참', '거짓'으로 응답하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하여 전체 점수의 범위는 0~12점이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3.3 노인접촉경험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을 알아보기 위해 Hutchison, Fox, Laas, Matharu와 Urzi(2010)이 사용한 노인접촉 척도를 Kim 등[1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 문항으로 노인과의 접촉 빈도와 관련된 내용 3문항, 노인과의 접촉의 질과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긍정적인 접촉을 한 것을 의미한다. Kim 등 [14]의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55이다.

### 2.3.4 공감능력

공감능력 측정 도구는 Kim [15]가 개발한 것을 Shin[16]의 연구에서 대학생에게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공감(7문항), 정서적 공감(7문항), 태도적 공감(6문항) 총 20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거의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D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대학

의 학생을 간호대학생으로 2023년 2월 9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Google forms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Google 설문을 진행할 시 연구 설명문과 연구 동의서, 소정의 답례품 제공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설명문에는 본 연구의 목적, 기간,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소요 시간, 이 외에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작성하였다.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수집된 자료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함에 보관되며 참여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하고, 연구 종료 후 연구 관련 자료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3년간 보관되며 이후 파쇄기로 폐기됨을 제시하였다.

##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태도, 치매지식, 노인접촉경험, 공감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태도, 치매지식, 노인접촉경험, 공감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와 사후검정(Scheffe)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치매태도, 치매지식, 노인접촉경험, 공감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치매태도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50명으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8명(12%), 여학생이 132명(88%)이었고, 학년은 3학년 62명(41.3%) 4학년 46명(30.7%) 2학년 35명(23.3%),

1학년 7명(4.7%) 순이었으며, 연령은 23세 이상이 114명(76%) 이하가 35명(23.3%)이었다. 종교는 53명(35.3%)이 있는 것으로, 97명(64.7%)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5명(10%)이었고 135명(90%)은 동거경험이 없었으며, 현재 조부모와 동거하는 대상자는 10명(6.7%)으로 나타났다. 미래 부모 치매 부양에 관한 생각은 128명(85.3%)이 부양할 것, 부양하지 않을 것이 22명(14.7%)이었다. 치매 증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은 '알고 있다' 92명(61.3%), '그저 그렇다' 34명(22.7%), '매우 잘 알고 있다' 18명(12%), '모르는 편이다' 6명(4%)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매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있음이 80명(53.53%), 없음이 70명(46.7%)이었고, 노인 관련 봉사경험은 있음이 101명(67.3%), 없음이 49명(32.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t=-2.83, p=.003$ ), 치매 증상에 대한 지식 정도( $F=2.89, p=.037$ ), 치매 교육경험 여부( $t=2.41, p=.009$ ) 노인 관련 봉사경험 ( $t=4.03,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with dementi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Characteristics		n(%)	Mean±SD	t/F(p)
Gender	Male	18(12.0)	3.91±0.36	-2.83 (.003)
	Female	132(88.0)	4.23±0.46	
Grade	1 <sup>st</sup>	7(4.7)	4.12±0.40	1.47 (.226)
	2 <sup>nd</sup>	35(23.3)	4.10±0.40	
	3 <sup>rd</sup>	62(41.3)	4.17±0.51	
	4 <sup>th</sup>	46(30.7)	4.30±0.42	
Age	<23	35(23.3)	4.23±0.42	.82
	≥23	114(76.0)	4.17±0.49	(.207)
Religion	Yes	53(35.3)	4.24±0.46	.87
	No	97(64.7)	4.17±0.46	(.194)
Co-residence experience with the elderly with dementia	Yes	15(10.0)	4.07±0.44	-1.06
	No	135(90.0)	4.21±0.46	(.146)
Co-residing with the elderly (Grand parents)	Yes	10(6.7)	4.10±0.36	-.73
	No	140(93.3)	4.20±0.46	(.234)
Willingness to care for parents with dementia	Yes	128(85.3)	4.20±0.45	.82
	No	22(14.7)	4.11±0.49	(.208)
Knowledge of dementia symptoms	Very confident	18(12.0)	4.29±0.49	2.89 (.370)
	Confident	92(61.3)	4.24±0.39	
	Unconfident	34(22.7)	3.99±0.57	
Educational experience in dementia	Yes	80(53.3)	4.28±0.42	2.41
	No	70(46.7)	4.10±0.48	(.009)
Volunteer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es	101(67.3)	4.29±0.41	4.03
	No	49(32.7)	3.99±0.49	(<.001)

### 3.2 치매태도, 치매지식, 노인접촉경험, 공감 능력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태도는 5점 만점 중 4.19±0.46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정서적인 태도는 4.17±0.60점, 행동적인 태도는 4.22±0.57점이었으며, 치매지식은 12점 만점에 9.67±1.05점이었으며, 노인접촉경험은 5점 만점에 3.10±0.54점이었으며, 접촉의 질이 3.38±0.82점, 접촉 빈도가 2.82±0.50점이었으며,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4.09±0.45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것은 태도적 공감 4.35±0.46점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인지적 공감 4.14±0.50점, 정서적 공감 3.81±0.66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s of dementia attitudes, dementia knowledge, contact experience with the elderly and empathy

N=150

Characteristics		Mean±SD	Range
Dementia attitudes	Emotional attitude	4.17±0.60	1-5
	Behavioral attitude	4.22±0.57	
	Total	4.19±0.46	
Dementia knowledge		9.67±1.05	0-1
Contact experience with the elderly	Frequency	2.82±0.50	1-5
	Quality	3.38±0.82	
	Total	3.10±0.54	
Empathy	Cognitive empathy	4.14±0.50	1-5
	Emotional empathy	3.81±0.66	
	Attitudinal empathy	4.35±0.46	
	Total	4.09±0.45	

### 3.3 대상자 주요변수 간의 관계

대상자의 치매태도, 치매지식, 노인접촉경험,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매태도와 노인접촉경험( $r=.204, p=.012$ ), 공감능력( $r=.273, p<.001$ )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지식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dementia attitude, dementia knowledge, contact experience with the elderly and empathy

N=150

Variables	Dementia attitude	Dementia knowledge	Contact experience with the elderly	Empathy
	r(p)	r(p)	r(p)	r(p)
Dementia attitude	.085(.302)	1		
Contact experience with the elderly	.204(.012)	.078(.340)	1	
Empathy	.273(<.001)	.061(.461)	.239(.003)	1

### 3.4 치매태도의 영향요인

치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태도와 차이를 보고 성별, 치매 지식 정도, 치매교육 유무, 노인 관련 봉사경험과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공감능력, 접촉경험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 사이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820~.934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71~1.220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확인할 결과 1.89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Table 4와 같이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위한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7.98$ ,  $p<.001$ ),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beta=.23$ ,  $p=.004$ ), 봉사( $\beta=-.206$ ,  $p=.009$ ), 공감능력( $\beta=.181$ ,  $p=.021$ ), 노인접촉( $\beta=.167$ ,  $p=.034$ )이 있었다. 또한 이 변수들의 치매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19%이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ementia attitude  
N=150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2.792	.470		5.935	<.001
Gender	.317	.107	.226	2.959	.004
Educational experience in dementia	-.081	.070	-.088	-1.153	.251
Volunteer experience with the elderly	-.201	.076	-.206	-2.646	.009
Empathy	.183	.078	.181	2.339	.021
Contact experience with the elderly	.143	.067	.167	2.139	.034
$F=7.98$ $p<.001$ $R^2=.217$ $Adj. R^2=.19$					

\*Dummy variable: Gender(reference: Male), Educational experience in dementia(reference: Yes)

## 4. 논의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추후, 간호대학생의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간호역량을 증진을 위

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치매지식 점수는 12점 만점에  $9.67\pm 1.05$ 점이었다. 이는 Shin [13] 연구에서 평균  $10.26\pm 1.24$ 점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측정도구는 다르나 총점이 같은 도구를 활용한 Kim [17] 연구에서는 12점 만점에  $8.39\pm 2.28$ 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Kim [17] 연구에서 치매 관련 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이 25.3%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 관련 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이 63.7%로 높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이해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이 본 연구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접촉경험은 5점 만점에  $3.10\pm 0.54$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노인접촉 질이  $3.38\pm 0.82$ 점, 노인접촉 빈도가  $2.82\pm 0.50$ 점으로 나타났다. Hwang[18] 에서는 노인접촉경험이  $3.26\pm 0.83$ 점, 노인접촉 질이  $3.36\pm 0.90$ 점, 노인접촉 빈도가  $3.15\pm 0.096$ 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Hwang [18] 연구대상자의 연령대가 20대 부터 50대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대상자는 20대 초·중반이었으므로 연령대의 차이로 인해 노인과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노인접촉 질이 다소 더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노인질환 및 치매와 같은 질병을 다루는 전공 과목을 수강할 뿐 아니라 3, 4학년에 경우 임상실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4.09\pm 0.45$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인지적 공감이  $4.14\pm 0.50$ 점, 정서적 공감이  $3.81\pm 0.66$ 점, 태도적 공감이  $4.35\pm 0.46$ 으로 나타났다. Jang [19]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6\pm 0.33$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Jang [19]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중 간호대학생 1, 2학년이 28%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공감 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인간심리의 이해' 등 사회, 정서와 관련된 과목을 배우는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공감 능력이 다소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매태도는 5점 만점에  $4.19 \pm 0.46$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정서적인 태도가  $4.17 \pm 0.60$ 점, 행동적인 태도가  $4.22 \pm 0.57$ 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i [8] 연구에서 치매태도는  $39.12 \pm 4.33$ 으로 나타났다. Choi [8]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1, 2학년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중 간호대학생 3, 4학년이 72%를 차지하였다. 고학년이 되며 간호교육과정을 통한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봉사활동 및 임상 실습을 통한 노인 및 치매 대상자와의 접촉 및 상호작용 경험은 보다 치매대상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에 도움을 줌으로써 치매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매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노인접촉경험이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 동거경험, 치매노인 자원봉사경험은 대상자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9]와 같은 결과로 해석된다. 즉, 노인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서는 노인접촉경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매 노인의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공감능력으로 확인되었다. Kim[9] 연구에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의 치매 노인에 대한 태도와 공감능력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공감능력이 좋을수록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노인봉사경험, 공감능력, 노인접촉경험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치매태도의 영향요인은 성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 [20]에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뇌를 가진 남성에 비해 정서적 공감에 강점을 보이는 여성의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감능력이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치매태도가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노인봉사경험과 노인접촉경험의 경우 노인봉사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접촉경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두 요인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치매노인과의 동거 및 자원봉사경험이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9]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치매 환자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과의 접촉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봉사 및 실습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은 공감능력으로 나타났다. Lee [6]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태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적 공감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ark [10] 연구에서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의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 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이 아니므로 본 연구와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공감능력이 치매태도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공감능력의 향상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치매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었으며, 독립변수로 공감과 노인접촉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치매태도를 위해서는 노인과의 접촉경험을 증진 시키고,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봉사경험을 포함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추후,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 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노인봉사 경험, 공감 능력, 노인접촉경험이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접촉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치매노인을 접촉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치매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치매 노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적용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3 statistics on the elderly
- [2]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Korean Dementia observatory, Korea, p.13, 2022
- [3] M. H. Park, E. J. Bong, "Effects of Dementia Prevention Gatekeeper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Attitudes, and Empathy Toward People with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3. No. 4, pp. 1795-1810, Aug.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4.125>
- [4] M. S. Lee, M. C. Kim, S. K. Kim, "Study 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2), 21-29, Vol. 2, No. 2, pp.21-29, 2014. DOI: <https://doi.org/10.15268/ksim.2014.2.2.021>
- [5] S. J. Park, K. S. Park, Y. J. Kim,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67-4477,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467>
- [6] M. H. Lee,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 Dementia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Pain Assessment in Patients with Dementia: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21, no.1, pp. 41-49, 2019.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9.21.1.41>
- [7] M. K. Lee, H. M. Jeong,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Dementia Care, Attitude toward Dementia and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es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5, No. 2, pp. 128-137, November 2019.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9.25.2.128>
- [8] H. J. Choi, Y. C. Kwon, "Factors Influencing Dementia Attitude and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2, pp.161-168, May 2020.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0.6.2.161>
- [9] B. M. Kim, J. H. Kim,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from Elderly with Dementia of Social Welfar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20, No. 4, pp. 667-677, 2022. DOI: <https://doi.org/10.14400/JDC.2022.20.4.667>
- [10] A. Y. Park, "A Study of Knowledge about Dementia,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in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 pp. 389-397,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1.389>
- [11] E. Y. Yeom, "The Influence of Dementia Knowledge, Ageism and Humanism on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8,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629>
- [12] H. O. Cho, *A Study on Public'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Master's thesis, Major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Korea, 1999.
- [13] J. H. Shin, Knowledge about dementia in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orea, 2014.
- [14] J. Y. Kim, M. H. Kim, K. H. "Mi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boni Ageism Scale(FSA):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6, No. 4, pp. 89~106, 2012. DOI: <https://doi.org/10.21193/kispp.2012.26.4.006>
- [15] Y. H. Kim, J. S.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pathy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8, No. 5, pp.61-84, 2017. DOI: <https://doi.org/10.15703/kjc.18.5.201710.61>
- [16] M. K. Shin,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interes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Daej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Korea, 2020.
- [17] D. L. Kim, S. Y. Lee, S. H. Lee, Y. J. Lee, Y. J. Lee, W. K. Lee, Y. J. Lee, "Factors Affecting Social Dista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Older Adults with Dementia: Focusing o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Ageism"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7, pp.373-381, July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7.373>
- [18] S. A. Hwang,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threat perception of the old generation*,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Korea, 2017.
- [19] H. J. Jang, D. Y. Lim,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Students' Knowledge on Dementia,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 Vol. 38, No. 2, pp.521-531, April 2021.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2.521>
- [20] S. Y. Hwang, M. S. Yoon, "Develop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33, No. 2, pp.193-210, June 2019. DOI: <https://dx.doi.org/10.17286/KJEP.2019.33.2.04>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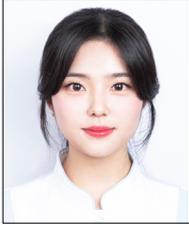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치매, 노인, 요양보호사, 가족, 웰에이징

박 지 연(Ji Yeon Park)

[준회원]



• 2021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재학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치매, 노인

배 다 연(Da Yeon Bae)

[준회원]



• 2021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재학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치매, 노인

박 지 연(Ji Yeon Park)

[준회원]



• 2021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재학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치매, 노인

배 다 원(Da Won Bae)

[준회원]



• 2021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재학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치매, 노인

방 지 윤(Ji Yun Bang)

[준회원]



• 2021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재학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치매, 노인

진 혜 진(Hye Jin Jin)

[준회원]



• 2022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재학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치매, 노인